

프랑스 북아프리카 선교 소식(제152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를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3-4절)

주 안에서 동역자된 교회와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신실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역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변함없이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유럽 전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 기도회가 얼마 전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저희도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3일간 계속된 기도회는 오전에는 흩어져서 지역 교회에서 모였고, 오후에는 여러 기도 관련 아틀리에를 갖고, 저녁 집회는 파리 시내의 몇 개의 거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전 세계 분쟁 지역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3만여 명이 들어가는 실내 경기장에서 다같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감동이 있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이후,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유럽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시금 부흥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와 예술로 전해지는 복음

지난 주에는 한 조각가를 초청하여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영감을 받은 목각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과 예술 세미나에 주로 초신자들과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초대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함께 탐구하면서, 동시에 창작 과정에서 깊이 만난 하나님과 깨달은 말씀에 대한 간증을 듣고,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즉석에서 신앙 시를 지어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다음 작품을 위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구상 중이라고 해서 참여한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영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신앙과 예술 세미나> 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양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난민사역 기관에는 아프리카, 중동 난민들 외에도 최근 들어 독거 노인들과 노숙인들도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오래된 가난과 질병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분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든 자신의 처지를 말할 곳도, 들어줄 이도 없는 분들의 사정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각자 가진 삶의 짐과 고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무거운 표정으로 왔다가 옅은 미소를 띠며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혹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배가 주리지는 않는지 마음을 쓰시면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언제나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공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저희 앞에 놓아두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아프리카에 방문 사역자 파송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를 지난 가을에 북아프리카에 파송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달에 다시 한 달간 파송해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숨죽이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이번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뿐 아니라, 무슬림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전국 곳곳에 가정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많은 이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고, 전도 여정을 위한 여러 필요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고난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고요히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며, 전 세계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절실한 이 때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견고하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

2026년 3월 4일
백남일, 김유경 올림